

오리나무

(학명 : *Alnus japonica*, 자작나무과)



산골짜기의 저습지나 하천가에 자라고 있는 낙엽교목으로 일본, 중국, 대만, 시베리아에도 분포한다. 2월말-3월초에 꽃이 피며, 꼬리화서로 수꽃이 온 나무를 덮을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화분원식물이다. 화분의 색은 연한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다. 가지는 회갈색이고 잎은 호생하며 장타원상 난형 또는 피침상 타원형으로 길이 4-10cm, 넓이 2.5-4.5cm이다. 예침두이고 설저 또는 원저이고 둔거치가 있다. 측맥은 7-9쌍으로 약간 구부러지며 엽병은 1-3cm이다. 열매는 10-11월에 갈색으로 익으며 다음 해 봄까지 나무에 달려 있다. 그 모양이 솔방울과 닮아 구과라고 한다. 자웅동주로 수꽃이 가지의 선단에 2-5개가 모여서 달리는데 3월에 개화한다.

오리나무류는 콩과식물과 같이 공기중의 질소를

고정하여 비료로 이용하므로 척박지의 사방수로 식재되며, 번식은 일반적으로 실생번식으로 한다. 가을에 종자를 채취한 후 기건저장을 하거나, 파종 1개월 전에 노천매장 하였던가 파종하는데 씨가 아주 작으므로 파종상이 건조하지 않도록 짚을 덮어주는 것이 좋다.

오리나무도 꽃잎이 없으며, 향기도 특별히 느낄 수 없고, 개화기의 기온도 꿀벌이 왕성하게 활동할 만큼 따뜻하지 않으므로, 꿀벌의 방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관찰되지 않았다. 개암나무처럼 개화가 되었을 때 가지를 잘라다가 벌통 가까이 가져다주면 좋을 듯하다. **양봉**

